

# 9월 28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9월 28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기대 밑돈 지표에 사흘째 미끄럼</p>	<p>예상밖으로 부진한 경기지표가 이어지면서 미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음.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42.25포인트(0.44%) 떨어진 9,665.19를 기록했고 S&amp;P500지수는 6.40포인트(0.61%) 내린 1,044.38을 기록했으며, 나스닥지수도 16.69포인트(0.79%) 내려선 2,090.92로 장을 마쳤음. 개장전 발표된 8월 내구재 주문이 예상 외로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미 증시는 약세로 돌아섰음. 미시건 소비자신뢰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수가 한때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8월 신규주택판매 역시 기대에 못미치는 실적으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음.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이날 장 마감후 금융권 감독강화 등을 포함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기관 추가도 약세권에 머물렀음.</p>
<p>8월 내구재주문 2.4% 감소 '쇼크'</p>	<p>미국 8월 내구재 주문은 뉴욕증시에 '쇼크'였다. 미국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믿고 있는 가운데 8월 내구재 주문 지표는 그런 믿음에 썩기를 박아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임. 특히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발표되는 것이라 미국 기업 경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내릴만한 지표로 볼 수 있어 더 기대가 컸음. 미국 상무부는 이날 개장전 8월 내구재 주문이 2.4% 감소했다고 밝혔음. 전월에 98% 급증했던 민간 항공기 수요가 42% 급감한 탓임. 세계 2위 항공회사인 보잉사는 8월 비행기 주문이 32대로, 전월 44대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밝혔음.</p>
<p>8월 신규주택판매 '예상하회'</p>	<p>미국 8월 신규주택판매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임. 거의 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음. 블룸버그통신이 75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예상치는 44만채였음. 그러나 미 상무부는 이날 8월 신규 주택판매가 연율 42만 9,000채로 전월보다 0.7% 증가했다고 밝혔고 7월 판매는 당초 43만 3,000채로 발표됐지만 이날 연율 42만 6,000채로 수정되었음. 신규 주택의 중간 가격은 2003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9만 5,200달러로, 전년동월보다 12% 떨어졌음.</p>
<p>소비자신뢰지수 '큰 폭 개선'</p>	<p>9월 로이터·미시건 소비자신뢰지수는 73.5로 전월 65.7에서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 이는 연방준비제도가(FRB)가 주중에 미국 경기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경기부양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됨. 그러나 내구재 주문과 신규주택판매가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도 다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p>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소폭 반등	국제유가가 소폭 반등했음. 그러나 이번 한주간 8.4% 급락했음. 주간하락률로는 7월이후 최대 낙폭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13센트(0.2%) 상승한 66.20달러로 마감했음. 장중 한때 지난 7월30일 이후 최저가격인 배럴당 65.05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음. 전날 4.5% 폭락에 따른 경계감이 반등세를 불렀지만 수요 감소 전망으로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시장관계자들은 분석했음.
대기업 "4Q 수출 5.6% 증가..올해 첫 성장 전환"	국내 주요 기업들이 4분기에 올해 처음으로 수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8일 지식경제부가 민간 업종별 협회 등이 조사한 4분기 수출 전망을 집계한 결과, 4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5.6%, 3분기에 비해서는 8.3%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IT 품목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었음. 중국, 북미 등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출물량과 단가가 동반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LCD 등 액정디바이스는 4분기 수출이 79.8% 급증하고, 반도체는 48.8%, 무선통신기기는 22.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음.
보금자리주택, 청약戰 시작됐다	국토해양부가 27일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개 보급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지구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청약자들의 눈치작전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보급자리주택은 지난 2007년 청약가점제 실시후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우선시됐던 것과 달리 단기가입자는 물론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분양시장의 문호를 넓혀냈기 때문임.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지가 탁월한 세곡·우면 등 강남권 공급물량의 경우 가점이 높고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조기 마감될 것으로 관측했음.
"8월수출 계절효과로 부진..LCD 나홀로 호황"	8월 수출이 부진했지만, 액정표시장치(LCD)가 7월에 이어 30%대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7일 `2009년 8월 품목별 수출입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8월 수출이 계절효과로 7월에 비해 감소했지만 LCD는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율을 유지했다"고 밝혔음. 8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9% 감소한 290억달러를 기록했다. 8월 무역수지는 17억달러 흑자로, 올해 들어 가장 적은 흑자를 기록했다. LCD 수출 강세로 8월 수출이 작년에 비해선 선방한 것으로 평가했음. LCD 8월 수출금액은 작년 8월보다 32.2% 증가한 22억 2100만달러를 기록했다. LCD는 중국 정부의 내수부양정책(가전하향)으로 지난 4월 이후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